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사례

충북 제천시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과장 김은숙

목 차

1. 머릿말 -----	84
2. 건강관리실 유형변화 및 사업연장 -----	85
3. 종점추진상황 -----	86
4. 사업추진시 어려웠던 점 -----	88
5. 건강관리실 운영 지도 -----	89
6. 운영관련 설문조사 -----	91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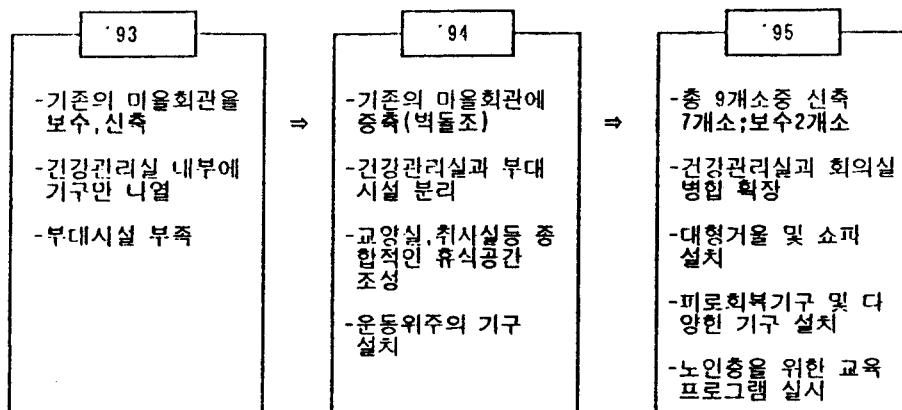
1. 머리말

제천시는 내륙 산간지로 '95년 1월 1일부터 시,군이 합쳐진 통합형 도시이다. 월악산의 산세가 수려하고 의림지, 박달재 등 명승, 명소가 자리잡고 있는 청풍명월의 본향으로 '89년부터 생활개선회가 활성화되어 농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과 도시의 문화생활격차 해소 및 농민의 건강생활 영위를 위해 '93년부터 도사업을 계기로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13개소,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에 농민건강관리실 13개소, 농작업건강휴게실 13개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생활개선사업으로서 정착해야 할 중요과제인 운영관리에 관한 나름대로의 추진해온 것을 토대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2. 건강관리실 유형변화 및 사업현황

○ 건강관리실 유형변화



○ 사업현황

사업명	설치현황	사업비 및 규모	사업내용
문화생활관 내 건강 관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1개소 - '94 1개소 - '95 9개소 - '96 2개소 - 총 13개소 ◦ 규모 : 40 ~ 7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 60,000천원 (지원 50,000 자담 1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건물 신축 및 기존 회관 보수 ◦ 건강관리실 및 복합적인 문화생활 생활 공간 조성 (건강관리실, 교양실, 노래방, 조리실 샤워실, 미술쉼터등)
시범마을내 관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6개소 - '95 7개소 - 총 13개소 ◦ 규모 : 8 ~ 3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 4,500천원 (지원 3,500천원 자담 1,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건물을 보수하여 활용 ◦ 건강관리실 단독 설치 및 현공간 에 부대시설 종합 활용 (건강관리실내 씽크대, 노래방기기등 설치)

○ 건강관리실 분류

유형별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 + 회의실+취사실	건강관리실+회의 실+취사실+휴식 시설+샤워실
건강관리실 개소수	7개소	4개소	15개소

3. 중점추진 상황

○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된 문화생활관 사업은 단위사업으로는 사업비가 큰 사업으로 부담이 가지 않을수 없었다.

사업 초창기인 '93년도에 도비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60,000천원(지원 50,000천원, 자담 10,000천원)으로 문화생활관 40평과 마을쉼터를 조성해야 했다. 건축 지식 부족 및 설계의 중요성을 몰라 간이설계만을 하였고 그후 전기배선등 많은 문제가 도출되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94년도에는 도청의 현지확인 결과 농촌의 바람직한 사업으로 인정받아 도비 사업이 전 시,군 (13개소)으로 확대되었고 도지사님이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기도 하였다.

문화생활관내 건강관리실이 호응이 높자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에도 소규모로 6개소의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나름대로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표본을 제시하였다.

○ '95년 연말 의회감사시 의원들의 건의와 질책 속에서 한의원이 좋은 사업이니 전면에 확대해보자는 의견 제시를 하여 문화생활관 9개소(지원금 4억 5천만원)와 시범마을내 7개소의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었다.

여러번의 시행착오 끝에 기존건물 개보수나 조립식 신축보다는 조적식 신축이 좋고 건강관리실과 회의실을 분리하여 활용하는 것보다 병합하는 것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입식구조 보다는 입식과 좌식이 병합된 시설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부대시설로서 취사실의 경우 마을에서 공동행사를 할 수 있게끔 가마솥을 걸되 현대적 시설처리를 하였으며 샤워실의 경우 2~3평 정도로 장소를 축소해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했다.

건강관리실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점지도한 내용을 살펴 보면

- 마을별 건물, 조경, 쉼터에 대한 기본평면도 작성
(생활지도사 + 마을민)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
 - 현장감독대리인 임명
 - 마을별 여건에 맞게 간이설계후 정식 설계
 - 하자보수등 공사관리 철저 : 하자보수증권
(공사금액 3~5%), 건축물관리대장 첨부
 -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협의회 개최 :

운영일지 배부 및 기록지도

4. 사업추진시 어려웠던 점

문화생활관 사업 추진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첫째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 부족이다.

설계의 중요성을 몰랐으며, 각실에 적절한 마감재 및 공사공정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고 부지(농지, 임야)의 농지전용 및 건물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해 기본지식이 없었다.

둘째 공사업체의 부실공사 및 이해부족이다.

부실공사로 인해 단열 및 난방이 미흡하고 공사업체의 문화생활관 이해 부족으로 내부시설 설치에 시행착오를 겪었다.

세째 공사시 감독기관의 부족으로 공사감독이 어려웠다.

부지가 신고지역(대부분의 농촌 지역)일 경우 공사중 간에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자재 및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공사업체의 소홀을 유발하기도 했다.
네째 마을민의 의견 수렴문제이다.

문화생활관 유치희망여부 및 내부시설이 마을대표자만의 의견이 아닌 전마을민의 수렴된 의견이어야 하는데 공사중간까지도 마을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음.

마지막으로 적절한 건강관리실 기구 선택이다.

건강관리기구 구입시 어떤 운동기구가 농민건강을 증진시키고 활용도가 높은지, KS 등 품질을 인정할수 있는 기구와 많은 종류중의 선택이었다.

'94년 부터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 사업으로 실시된 건강관리실은 문화생활관과 달리 사업비가 작아 기존 건물(마을회관등)의 한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였다.

기존 건물이 낡은 경우는 난방 및 설치에 많은 제약을 받았고 부대시설을 갖출수 없을뿐 아니라 기구 선택 시에도 필요성보다는 저렴한것을 우선 구입하였다.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실 사업중 가장 큰 문제는 마을민들의 의욕과 적극성이었다.

하고자 하는 마을에는 해결책이 뒤따르지만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일은 모두 지도소 탓을 하여 마음을 많이 태웠다.

5. 건강관리실 운영 지도

건강관리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 건강관리실 운영협의회 개최

- 사업이 마무리되면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을별 책임자 및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운영방법을 지도
- 관리운영 규약 제정 및 관리운영대장을 배부,지도

○ 각 실에 맞는 교육 실시

- 건강관리기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내용의 순회교육 실시
(취미과제 교양반, 노인교실반, 향토요리반, 저공해비누 제조등)
- 교양실을 이용하여 마을노인들이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에게 한문교육 및 제사상 차림, 예절교육, 다도 교육등 전통문화계승 교육 ('95. 12. 10 봉양읍 팔송리 문화생활관 교육 장면 KBS 1TV "농어촌 지금은" 방영)

○ 각종 회의 개최 및 정보습득의 장으로 활용

- 각 읍,면,동별 생활개선회 및 부녀회, 리장, 작목반 회의등을 개최하여 건강 교육 및 홍보 효과
- 건강관리실내에 농사지식 및 생활관련 책자를 비치하여 활용

○ 새해영농설계 교육 장소로 활용 ('96 : 6회 244명)

○ 이장 사무실로도 활용하여 마을민 상담 및 마을일 협의

○ 보건소의 건강진단 및 상담장소로 활용

- 부녀자 및 노인들의 건강진단 및 상담장소로 활용

○ 마을의 공동행사 및 애경사시 활용

- 마을에서 불우 노인들 경로잔치를 열어주고 회갑등에 경사시 장소제공 및 부대시설, 집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건강관리실 운영비 해결 방안 지도

- 건강관리실외에 수익성이 있는 부대시설 (소득활동실, 농산물 가공실, 구판장등)을 설치하고 교양실 및 노래방등의 부대시설 활용시 다소의 사용료를 받아 운영비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

6. 건강관리실 운영관련 설문조사 실시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운영과 활용 실태를 평가하고 유형별 비교 분석하고자 '96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건강관리실 기설치 마을 (총 24개소 : 농촌 문화생활관 11개소, 생활개선시범마을중 건강관리실 13개소) 을 대상으로 마을 대표자 1명씩과 남,여 활용자 4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실 설치 현황과, 활용도 관리운영에 관하여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후 분석 결과를 보면

○ 건강관리실 운영 관련 설문 조사후 분석 내용

○ 건강관리실 설치 현황 :

- 건강관리실 설치 규모는 10 ~ 20평이 42%(10개소)로 가장 많고 31 ~ 40평, 21 ~ 30평순으로 나타났음.
- 건강관리실내 설치된 기구수는 6 ~ 10종이 54% (13개소)로 가장 많았고 11 ~ 15종이 29%(7개소), 1 ~ 5종이 17% (4개소) 순으로 나타났음.

- 건강관리실에 갖추고 있는 부대시설은 회의실이 17개소로 가장 많고 조리실, 샤워실, 마을쉼터, 노래방순으로 나타났음.

○ 건강관리실 활용도 :

- 활용시기는 농한기인 11 ~ 2월 사이가 가장 많이 활용하며 농번기 (3월 ~ 10월)에는 대부분 1 ~ 10회, 농한기 (11월 ~ 2월)에는 15회 이상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녁 식사후에 가장 많이 활용함.
- 활용 연령층은 40대 이후의 중년층이 많이 활용하고 문화생활관처럼 건강관리실외에 부대시설이 갖춰진 곳은 20대 미만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구로는 벨트 맷사지기, 헬스콤 같은 피로회복을 위한 근육 이완 기구로 나타났음.
- 문화생활관내의 건강관리실이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내의 건강관리실보다 활용도 및 만족도가 높고 건강관리실 단독설치 보다는 부대시설을 갖춘 건강관리실의 활용도가 높아 종합적인 문화, 휴식 공간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 건강관리실 운영

-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음.
- 건강관리실 운영 책임자는 운영비 관계로 이장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일 많이 대답했고 건강관리실 관리는 부녀회원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청소, 관리한다는 마을이 63%로 가장 많았음.

- 건강관리실 운영비는 전액을 마을 기금에서 충당하는 마을이 가장 많았고 문화생활관의 경우 부대시설(노래방 등) 이용 시 다소의 사용료를 받아 운영비 일부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마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음.

○ 건강관리실 운영 후 가장 큰 문제점 :

- ① 운영비에 대한 부담
- ② 공동물건이라 기구를 마구 다룸
- ③ 전담 관리인이 없다
- ④ 사용자들이 기구 사용법을 잘 모름
- ⑤ 시설부족과 기구 부족

- 건강관리실 운영시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비 해결 문제로 나타남.

○ 건강관리실 운영시 바라고 싶은 것

- ① 운영비 지원
- ② 건강관리기구 이용법 관련 교육
- ③ 마을민들을 위한 건강관리실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요망
- ④ 건강관리실을 운동기구 외에 휴식, 취사, 샤워 공간

간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마을민들이 함께 사용할수있는 공간으로 조성 요망

- ⑤ 노령층을 위한 물리치료기구 및 짐질기구 설치
- ⑥ 건강관리실 사용후 기구 정돈

7. 건강관리실 사업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운영비 부담 문제 : 건강관리실 운영비를 마을에서 계속 자담할 경우 부담 과중

⇒ 운영비 보조 : 운영비 전액을 마을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이어서 마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영비 보조가 있어야 함.

○ 기존건물 개,보수시 건강관리실 설치 어려움: 기존 건물이 대부분이 60 ~ 70년대 건물로서 건물이 낡아 보수시 많은 어려움(난방,전기배선,채광)

⇒ 조적식 건물을 신축하여 설치 : 부지와 사업비가 해결되면 조적식으로 신축하는 것이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영구활용을 위해 바람직함.

○ 노인층을 위한 건강관리기구 및 프로그램 부족

⇒ 건강관리기구 선정시 물리치료기구등 노인병을 치료할수있는 기구를 선정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노인층

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사용법 무지 및 주인의식 부족, 아이들 장난으로 찾은 기구 고장 및 파손

⇒ ○ 건강관리기구 활용법 및 정신교육 지도를 실시하고 사용법을 기구에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도록 함.

○ 아이들의 방학시 건강관리기구를 엄마와 아이가 함께 활용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용법 지도

○ 건강관리기구 고장시 업체의 사후서비스 지원 :

⇒ ○ 전문업체의 건강관리기구를 선정하여 고장시 사후서비스 철저

○ 건강관리실 활용 부족 : 운동은 농사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과 마을회관과 다르게 거리감을 느껴 활용 기피

⇒ ○ 건강관리실에서 건강 및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과 운동의 차이점을 인식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킴.

○ 건강관리실 외 회의실, 휴식실, 취사실, 샤워실, 노인실등의 종합적인 문화, 휴식 공간을 설치하여 마을회관, 노인정의 기능뿐 아니라 다목적용 공간으로 활용

○ 건강관리실 실외에도 휴식시설, 야외 운동시설 및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만남의 장소로 활용